

한마음으로 일군 원력, 포교 꽃 피우다

대행 스님 40년 포교의 길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이 제22회 포교대상(종정상)을 수상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11월 5일 포교대상 심사위원회를 통해 제22회 포교대상 수상자를 선정·발표한 데 이어,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시상식을 불행했다. 자승 스님은 "원력과 신심으로 포교 일선에서 정진해온 수상자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조계종 제33대 집행부는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연등축제, 간화선, 세계지도자 포럼 등을 통해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혜총 스

님은 축하인사와 함께 "포교원에서 전법단을 출범, 포교 결집대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종단만의 노력으로는 포교와 전법의 극대화는 어렵다"며 "사부대중 하나하나가 포교를 위한 값진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행 스님을 대신해 주지 혜원 스님이 포교대상을 수상했다. 수상 전 대행 스님의 포교공적 영상이 상영돼 대중의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공로상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불암사 주지), 류진수 부산시불교신도회장, 홍사성 前 불교신문 편집부장, 이용부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 받았다.

원력상은 마산 정법사 주지 지태 스님, 남해 망운사 주지 성각 스님, 쌍문노인복지센터 관장 지현 스님, 이준교 수불자회 고문, 청도사암연합회, 이종권 국제포교사(Dharma Boom of America, Inc 대표), 김인숙 前 여성개발원장, 손병철 육군1군사령부 법무사 주지, 이옥태 해동종 교법사, 유상중 대한불교청년회 고문 등 10명이 받았다.

본지에서는 포교대상을 수상한 대행 스님을 비롯해 공로상 수상자 4인의 원력을 3주에 걸쳐 집중조명 한다.

정리=조동섭 기자

제22회 포교대상 수상한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내 집 짓는 심정으로 불사했을 뿐”



대행 스님은 1927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스님은 일찍이 자성을 밝히고 증득하신 바를 완성하기 위해 10여 년이 넘는 세월을 수행하며 산중에서 보냈다. 치악산 등에서 생사일대사를 해결한 대행 스님은 누구나 내면에 무한한 능력이 있는 근본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스스로를 유약하고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위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했다.

스님은 닥쳐오는 모든 것을 근본 자리에 맡겨 놓고 지켜보았으며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안양에 법석을 열었다.

1972년 안양에 한마음선원의 전신인 대한불교회관을 건립한 스님은 현재까지 국

내 15개 지원, 해외 10개 지원을 설립하는 등 폭넓은 포교활동에 전력해 한국불교의 위상을 드높여 왔다. 스님은 어린이부터 학생, 청년, 거사포교 활성화를 통해 생활 속의 불교가 정착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포교를 향한 스님의 원력은 1994년부터 불교의 현대화·생활화·세계화를 사시로 한 현대불교신문 창간과 불교서점 개

점,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 개설 등 미디어포교로 이어졌다. 특히 스님의 가르침은 <뜻풀이 한글경전> 발간, 한마음과학원 개설과 외국어 번역을 위한 국제문화원 설립 등을 통해 생활불교, 현대불교, 세계불교로 현대인들에게 지혜의 길을 제시해 왔다. 이런 공로에 대해 스님은 과거 언론과

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므로 내가 이룬 것도 없지요. ‘나’라는 모습을 보지 말고 그 뜻을 보면 됩니다. 세상이 공(空)한 줄 알면 스스로 능력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집을 짓는 심정으로 불사에 참여하다보니 원력이 결실을 본 것이지요.”



▲1994년 10월 월대불교신문 현판식에 참석했던 대행 스님.

◀대행 스님이 법회 중 신도에 힘내라며 손을 들어보이는 모습.

▼1990년 4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구치소를 찾아 재소자를 위로하는 대행 스님.



“진리 믿어야 종교 갈등 해소”

대행 스님 생활 수행법 등 제시

대행 스님은 국내외 해외를 오가며 법회와 답선 등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부처님 가르침을 전함으로써 그들의 고통을 덜고 행복을 느끼게 해주려는 자비행을 실천해 왔다.

새천년을 앞둔 1999년 7월, 대행 스님은 독일 뒤셀도르프 근교 라팅겐시민회관에서 독일 현지인 등 1500여 명이 참가한 가

운데 '마음의 문을 열어 내면의 길을 찾자'는 주제로 범문했다. 대행 스님의 가르침이 정리된 당시의 인터뷰 기사를 정리했다.

-스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참나'를 발견하는 생활(선·禪)을 평소 강조하셨는데 수행지침은 무엇입니까.

“생활을 떠난 도(道)는 도가 아니며, 선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불 한모금

을 마셔도 전체 생명이 마신 것이고 또 내가 마셨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예컨대 똥을 보면 더러움을 느끼지만 그것이 몸 안에 있을 때는 전혀 더러움을 못 느끼는 이치와 같습니다. 이처럼 나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이치를 깨닫는다면 서로 결별 것이 없고 원수질 일도 없습니다.”

-깨달음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본래 자리인 공(空)을 일컫는 '주인공(主人空)'을 깨달으면 지구도 우주도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인이 됩니다. 안되는 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되고 안되는 것을 다 쉬기 위해서 마음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모두 좋은 마음을 안고 살아가려 하지만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역대 부처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진리는 있었지요. 사람들은 무슨 무슨 종교라는 이름을 지어놓은 채 종교를 믿기는 하지만 진리는 숭상하지 않고 있어요. 진리는 종교라는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말없이 말하는 음파(音波)를 통해 진리가 두루 전파될 때 각박한 세상은 밝아질 것입니다.”

스님이 만든 생식 곡류 50%를 받아시킨 호소 발아생식

- 1 타 생식에 비해 채소류, 해조류가 2배 이상 첨가되었습니다.
- 2 유기농으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 3 99% 국내산 제품입니다.
- 4 돈을 벌기 위한 제품이 아닌 중생들의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불심 깊은 불자님 지역총판 모집합니다. 070-7629-5920

▶1일 1개 1포(40g) x 60포 (2개월분) 100,000원

고전 대나무솜 평상

대나무솜의 탁월한 건강효과

- 심신안정효과** 공기정화작용과 음이온효과가 심신을 안정시켜줍니다.
- 냄새제거효과** 탁월한 흡착력이 악취와 수면을 방해하는 각종냄새를 강력 탈취합니다.
- 전자파차폐효과**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며 유해 전자파의 공해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 원적외선효과** 수면 중 전신을 온화하게 덥혀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를 촉진시킵니다.
- 수분흡착·수질정화** 수면중 흘리는 땀, 분비물 등 다량의 수분을 빠르게 흡수합니다.
- 항균효과** 살균력을 지닌 죽초액이 첨가되어 세균 번식 억제, 뛰어난 항균력이 있습니다.
- 피부보호효과** 물을 부드럽게 하고, 목민에 비해 미세열이 2배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 수액차단효과** 수액을 완벽히 차단하여 숙면과 건강을 선별해드립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로 만들어진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대나무솜 침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기술 마크를 꼭 확인하십시오.

대나무솜은 신비한

모양의 수액은 기공으로 구성되어 있어 흡착력이 높고, 수분 흡착력이 뛰어나 습기를 제거하여 쾌적한 수면을 도와줍니다.

전국 대리점 및 지역 총판 모집 080-300-9928

(총) 전주 갤러리아백화점 임점

서울전시장 031,796,2981	진주전시장 055,746,7887
경기남부총판 031,205,5567	호남전시장 062,385,9957
일산전시장 031,925,5949	거제전시장 055,680,0011
부산전시장 051,516,1680	밀양전시장 055,353,8869
부산기장전시장 051,727,8018	울산전시장 052,223,7272

피곤하십니까? 수풀림솜침대에서 체해해 보십시오.

수풀림 대나무솜침대

대나무솜의 비밀을 경험하십시오.

수풀림 대나무솜 침대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개발하여 특허등록된 대나무솜을 원형 그대로 제작한 친환경 건강침대입니다.

대나무솜침대의 특별한

- 달취 및 오염정화 기능
- 튼튼한 통원목 가공
- 원적외선 방사효과
- 수분흡착 기능

금송 대나무솜침대 Q 2200 X 1800 X 900

수풀림 국립산림과학원 기술이전업체 수풀림 솜침대 supullim charcoal bed

www.supullim.com